

목포시 민원서비스 낙제점...고강도 쇄신책 시급

행안부 평가 '라등급'...신뢰도 타격
지자체 평균 84.9점보다 5.51점 ↓
고충민원 처리·만족도 등 전반 미흡
市 "교육 등 강화 서비스 향상 만전"

목포시가 중앙부처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하위권 성적표를 받으며 행정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장기간 방치된 시민의 고충 민원 사례까지 수

면 위로 드러나며 강도 높은 행정 쇄신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하위권인 라등급을 기록했다.
평가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간 전국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상위 10% 이내가 가등급, 하위 70~90%가 라등급을 받는 구조에서 목포시는 사실상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목포시의 종합 점수는 79.42점으로 동일 평가군(기초지자체 시 단위 75곳) 평균인 84.93점보

다 무려 5.51점이나 낮았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민원 행정 전략 및 체계 항목만 22.55점을 기록해 평균(22.08점)을 소폭 상회했을 뿐, 나머지 핵심 지표는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 특히 고충 민원 처리 항목은 13.17점에 그쳐 평가군 평균(15.07점) 대비 1.90점이나 낮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이어 민원 제도 운영은 평균 대비 1.20점,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는 0.90점, 민원 만족도 역시 0.16점 낮은 15.90점을 기록하는 등 5개 평가 항목 21개 지표 전반에서 행정 누수가 확인됐다.
이러한 저조한 평가 결과는 실제 시민들이 겪

는 행정 불편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증명되고 있다. 지난 8일 목포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민소통신문고에는 시의 안일한 민원 처리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시민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시민은 약 5개월 전 공용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번호판 없는 차량 문제를 신고했으나 두 달이 넘도록 묵묵부답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담당 부서에 직접 항의 전화를 한 뒤에야 경고문이 부착됐지만, 그로부터 다시 두 달이 지나도록 차량은 여전히 방치된 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민은 현장 확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소극행정을 지적하며 민원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뼈를 깎는 성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전파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처리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3~4월 중 행정부 세부 지표가 확정되는 대로 전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직원 교육과 수시 점검을 강화해 민원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목포=정해선 기자

'치유와 심'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열린다



내달 1일...체류형 프로그램 풍성
11개 코스·유채꽃밭 걷기 등 다채
최대 10만원 '치유페이' 혜택 제공

완도군이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인 청산도 일원에서 '2026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개최한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청산도에서 치유해 봄"을 주제로 다음 달 1일부터 한달간 걷기와 공연, 체험, 야간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체류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본격적인 행사는 오는 4월4일 개막식 '나비아, 청산 가지'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방문객이 섬에 첫발을 내디디는 도청할 일대는 단순한 대기 공간이 아닌 '웰컴 존'으로 꾸며져 버스킹 공연과 할머니 장터, 대형 유채꽃 포토존 등이 운영된다.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청산에 걸으리랴다'는 총 42.195km에 달하는 슬로길 11개 코스 중 4개 코스 이상을 완주한 관광객에게 완보증과

기념품을 지급한다.
아름다운 유채꽃밭이 어우러진 서편제길에서는 '봄의 왈츠' 콘서트와 달빛 나이트 워크(야간 걷기) 등 주야간을 아우르는 참여형 행사가 열린다.
또한 기(氣)가 센 곳으로 알려진 범바위 팔찌 만들기 체험과 신홍리 해변 맨발 걷기 등 해양 치유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방문객들의 피로를 덜어줄 예정이다.
이밖에 해안 치유길 투어, 달팽이 편지, 보물찾기, 쭈깁 썰렁지 등 이색적인 이벤트가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진다.
완도군은 방문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행 경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완도치유페이' 혜택을 제공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는다.
완도군 관계자는 "산과 바다, 풍경이 빛어낸 청산도의 진면목을 낮과 밤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청산도에서 진정한 심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해남 전지훈련 열기 잇는다 전국 스포츠 대회 시즌 돌입

15개 종목·47개 대회 연중 개최

해남군이 동계 전지훈련의 열기를 이어 이달부터 본격적인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시즌에 돌입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15개 종목, 23개의 전국 단위 대회를 비롯해 도·군 단위 24개 대회를 연중 개최해 생활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우선 오늘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솔라시도CC에서 열리는 '제43회 한국대학골프대회'를 시작으로 대회의 막이 오른다.
이어 14일부터 22일까지 우슬체육관 등 3개소에서 전국 8개 팀, 1천3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제63회 춘계 전국 남녀 중·고농구연맹전'이 치러진다.
28일에는 지역 체육인들의 화합 무대인 해남군 축구협회장기 대회도 열린다.
군은 지난해 국내 유일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정규 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연인원 11만여명 방문과 약 110억원의 경제 효



해남군은 올해 15개 종목, 23개의 전국 단위 대회를 비롯해 도·군 단위 24개 대회를 연중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제61회 춘계농구연맹전 경기. <해남군 제공>

과를 창출한 바 있다.
올해도 체계적인 시설 관리와 안전한 운영으로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동계 전지훈련과 연간 스포츠 대회를 양 날개 삼아 마케팅 효과를 일년 내내 지속하겠다"며 "스포츠 중심지 해남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신안군, 도서 맞춤 생활체육 강좌 확대

내달 1일 암태면 필라테스 개설



신안군은 도서 지역의 스포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생활체육 강좌를 확대한다.
10일 신안군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암태면 주민을 대상으로 필라테스 강좌를 신규 개설해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간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는 '1004섬 신안 스포츠강좌' 사업의 일환이다.
섬 지역 특성상 민간 체육 시설이 부족해 원정 수강을 해야 했던 여성과 학생 등 소외계층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군은 지난해 4월 암태면을 시작으로 현

재 필라테스와 태권도 등 강좌 4개소를 운영 중이며, 총 262명이 수강할 정도로 호응이 뜨겁다. <사진>
지난 3월 시작된 암태면 필라테스 수강생 모집 역시 당일 조기 마감돼 군은 현재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
강좌는 1년차에 보조금을 통해 무료로 진행되며, 2년차부터는 수강료를 받아 공공 스포츠클럽이 자체 운영하는 자립형 모델로 전환한다.
군은 향후 3년에 걸쳐 거점별 스포츠 강좌를 12개소까지 순차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있다"며 "앞으로도 거점별 스포츠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자



함평군은 지난 9일 군청 군수실에서 함평읍 어울림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식'을 개최했다. <함평군 제공>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위수탁 협약

2028년까지 시설 관리·주민 프로그램 운영

함평군은 10일 "지역 주민들의 생활 복지 거점 시설인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의 위수탁 협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군을 비롯한 함평읍 어울림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에 따라 조항은 이달부터 오는 2028년 12월까지 시설 전반의 유지 관리와 지역 주민 참여 프로

그램 운영 등을 전담하게 된다.
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추진된 함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조성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민자치회실 ▲건강증진실 ▲공동보육실 ▲공유 주방 ▲풍아리실 등 다채로운 편의 시설이 들어서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길원 어울림협동조합 이사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기자



강진군, 귀농 정착 지원 주작목 배움교실 운영

내달 2일까지 16개 작목 대상

강진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영농 창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주작목 배움교실'은 초기 귀농인은 물론 새로운 작목으로 전환을 고민하는 기존 농업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다음 달 2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16개 작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진>
프로그램은 선도 농가 현장에서 2시간씩 작목별 특성과 재배 기술, 유통 전략 등 농업 경영에 필요한 핵심 실무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귀농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도 농가의 성공 노하우를 직접 전수하고, 각 작목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참가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작목을 선택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영아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귀농 준비 과정에서 작목 선택은 매우 중요한 첫 단추"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귀농인들이 체계적으로 작목을 결정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멘토-멘티맞춤교육, 현장실습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정영록기자

영광군,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 배부

결혼·출산·보육·복지 등 망라

영광군은 10일 "군민이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안내서'를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결혼·임신·출산과 영유아, 아동, 청년,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과 지원 사업을 대상자·분야별로 정리해 군민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출산·보육, 교육, 청년정책, 일자리, 복

지서비스, 건강·돌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원내용을 폭넓게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
군은 읍·면사무소와 유관기관 등에 안내서를 비치하고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군민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과 체감도 높은 인구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